

한국 남성의 바디컨서스 패션스타일 수용정도와 발현의 특수성

- 20~30대 몸 관리행동 참여자를 중심으로 -

이 채 영 · 하 지 수*

경희대학교 의류디자인학과 시간강사
서울대학교 의류학과 교수*

요 약

본 연구의 목적은 한국 남성의 바디컨서스 패션스타일의 수용정도와 활용 경향에 따른 스타일 발현의 특수성을 파악하는 것이다. 본 연구를 위해 문헌 연구와 아메데오 지오르기의 현상학적 연구 방법론에 기반을 두어 질적 연구를 수행하였다. 이를 위해 몸 관리행동을 수행하는 한국 20~30대 남성을 대상으로 심층 인터뷰를 진행하였고 다음과 같은 결과를 도출하였다. 바디컨서스 패션스타일을 선호·수용하는 집단에서는 몸의 변화를 과시하여 드러내고자 하는 타자 지향적 과시와 몸을 통한 자기표현 욕구 증가 및 단점의 보완을 위한 자기만족적 표현 욕구가 바디컨서스 패션스타일 촉진 요인으로 도출되었다. 바디컨서스 패션스타일을 선택적으로 수용하는 집단에서는 몸과 패션을 분리하는 경향이 나타났다. 몸과 패션의 분리는 신체적 편안함을 우선시하여 의복을 선택하거나 몸을 우선시하여 특정 의복 스타일로부터 자유롭게 개인의 취향을 반영한 의복 선택을 추구하였다. 바디컨서스 패션스타일을 배제·불호하는 집단은 몸의 단점 부각에 대한 두려움과 몸을 드러내는 스타일에 대한 자체적 거부감이 나타났으며, 타인 시선에 대한 불편함, 성별 스타일 고정관념이 바디컨서스 패션스타일 발현의 방해요인으로 도출되었다. 바디컨서스 패션스타일의 선택과 활용에 있어서는 상체와 하체의 구분된 갖대를 적용하고 있었는데, 한국 남성들은 상체의 실루엣을 드러내는 것은 비교적 긍정적으로 인식하는 반면, 하체의 실루엣을 드러내는 의복 선택에는 소극적인 태도를 취하고 있었다. 또한, 바디컨서스 패션스타일 선택에 있어 색상과 디테일을 매우 제한적으로 활용하고 있었다. 이러한 경향은 몸에 밀착하는 실루엣을 보다 효과적으로 가시화하여 표현하고자 하는 것으로 해석할 수 있다. 위의 결과들을 바탕으로 한국 남성의 바디컨서스 패션스타일 발현의 특수성은 집단의식에 따른 스타일 결정, 패션스타일에 규정되는 이상적인 몸의 재구성, 관리된 몸을 통한 내면의 표출로 도출되었다.

주제어 : 남성 패션, 바디컨서스, 바디컨서스 패션스타일, 몸

본 논문은 박사학위 논문의 일부임.

이 논문은 서울대학교 의류학과 BK21플러스 의류패션 전문 창조 인재 양성 사업팀의 지원으로 수행된 연구임.

+교신저자: 하지수, jisoocha@snu.ac.kr

접수일: 2018년 4월 22일, 수정논문접수일: 2018년 5월 21일, 게재확정일: 2018년 5월 31일

I. 서론

몸은 패션의 의미를 전달하고 개개인의 경험이나 사회적 환경에 따라 다양한 패션을 발현하는 행위의 대상이 되는 실체로서 그 중요성을 간과할 수 없다. 이에 따라 현대에 들어 몸에 대한 의식과 태도는 몸의 영역이 개인뿐만 아니라 사회전반에 중요한 이슈로 여겨지게 되고, 특히 몸이 사회가 형성한 외모규범과 관련지어져 하나의 소비대상이자 자기표현의 장으로 받아들여지고 있다.

이처럼 몸에 대한 의식이 확장되면서 바디컨서스 패션스타일(body conscious fashion style) 개념을 탄생시켰다. 바디컨서스 패션스타일은 인간의 몸에 대한 미학적 재발견에서 출발하였으며 몸의 실루엣을 드러내는 스타일을 의미한다. 바디컨서스 패션스타일은 몸에 관한 인식과 태도가 변화하면서 주요한 패션 테마로 빈번히 다루어지고 있다. 동시에 가장 주목할 만한 변화는 과거 몸이라는 실체는 여성의 몸과 관련지어져 다루어 졌다면, 최근 들어 남성의 외모관리가 중요해지고 남성의 몸이 대상화 되고 남성 소비자도 패션시장에 중요한 소비자로 부각되면서 그 중요성이 확대되고 있다. 특히 지난 몇 년 사이 남성들의 몸에 대한 인식이 이전과 많이 변화됨으로써 남성의 바디컨서스 패션스타일도 대중적으로 받아들여지고 있다.

또한 현대에는 남성들이 외형적 개선을 위한 몸을 관리하는 행동이 만연하고 있고, 어느 때보다 몸 관리의 중요성이 확대되었고, 이에 따라 몸에 대한 의식 변화가 매우 다양하게 변화되고 이는 의복 선택에 있어서도 영향을 미치는 경향이 관찰되고 있다. Park(2018)의 기사에 따르면 그동안 여성의 전유물로 여겨진 레깅스를 찾는 남성들이 크게 늘면서 남성용 레깅스 시장이 고속성장하고 있다. 이는 현대인의 라이프스타일을 반영함과 동시에 편안함에도 스타일까지 갖추면서 건강미와 몸매를 드러내 자기관리를 하는 남성에게 다가가

면서 패션과 관련하여 남성들의 관심이 높아지면서 관련 매출이 증가하는 것이라고 보았다. 즉, 몸 관리행동을 실천함으로써 몸의 생물학적 변화뿐만 아니라 몸에 대한 의식의 변화는 의복을 선택하고 활용하는 방법에 있어 몸을 의식하는 수준변화가 관찰 가능하며, 이와 같은 몸에 대한 의식과 의복 태도의 변화는 바디컨서스 패션스타일에 대한 인식 및 활용경향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것을 의미한다.

이와 같이 현대에 들어 남성들은 한국 패션산업에 있어 굉장히 중요한 소비자로 부각되고 있다. 국내 남성의 몸을 관리하는 행동은 가시적인 변화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현재까지 이루어진 국내의 몸 의식의 변화와 이에 따른 바디컨서스 패션스타일 활용 관련 연구들은 여성들 중심이었다. 즉, 한국 남성의 몸 의식 변화에 따라 바디컨서스 패션스타일이 어떻게 수용되고 발현되는지에 관한 연구가 부재하다고 볼 수 있다. 따라서 국내 남성들의 몸 의식과 태도변화에 따라 바디컨서스 패션스타일 수용정도는 어떻게 변화하고, 이와 개인이 추구하는 패션스타일과의 상호 영향력을 파악하는 연구는 기존의 여성들을 대상으로 한 연구결과들과는 상이한 결과를 도출해 낼 수 있을 것으로 사료된다.

Lee(2017)의 연구에 의하면 남성들은 몸 관리행동을 실천함으로써 몸의 외형적 개선을 추구함과 동시에 ‘자기관리가 된 남성’, ‘업무 능력이 탁월한 사람’, ‘사회적 관계에 있어서의 원활한 남성’과 같이 사회적 의미를 담고자 하고 있었다. 결과적으로 한국 남성에게 바디컨서스 패션스타일은 개선된 몸의 외형적 형태를 드러내고 개인의 외형적 특질을 드러내기에 적절한 의복으로 여겨지고 있었다. 하지만 바디컨서스 패션스타일에 대한 욕구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실제 바디컨서스 패션스타일의 수용정도와 활용방법에는 차이가 있었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한국 남성을 대상으로

바디컨서스 패션스타일의 수용정도와 발현의 특수성에 관한 질적 연구를 진행함으로써 몸 관리행동의 경험에 따른 몸 의식 변화 원인에 따른 의복태도 변화를 밝히고자 하였다. 더불어 바디컨서스 패션스타일의 수용정도에 따른 영향요인을 파악함으로써 바디컨서스 패션스타일의 활용경향과 특수성을 밝히고자 하였다.

II. 이론적 배경

1. 바디컨서스 패션스타일의 개념

패션에서 바디컨서스라는 용어는 1960년대 말에 나타나기 시작하였고, 몸에 대한 관심이 개인의 패션스타일에 발현되기 시작하면서 바디컨서스 패션스타일이라는 개념이 등장하였다. 바디컨서스 패션스타일은 우리의 신체에 대해 미학적으로 재발견하고자 하는 의식에서 출발한 특징 때문에 몸을 있는 그대로 자연스럽게 드러내는 것을 기본 개념으로 가지고 있으며, 인체를 감싸므로써 몸의 선을 뚜렷이 나타낸 실루엣과 몸을 최대한 드러내는 스타일을 의미한다(Jo, 2001).

이와 같이, 바디컨서스 패션스타일은 일반적으로 몸을 자연스럽게 감싸는 소재로 만들어진 혹은 몸을 그대로 노출시키는 의복 스타일로 설명하고 있다. 즉, 바디컨서스 패션스타일은 기본적으로 몸이 외형적으로 중요하게 의식되어진 스타일로서 몸의 형태가 자연스럽게 또는 뚜렷하게 그대로 드러나거나 몸의 형태가 살려진 것을 뜻하고 있다.

본 연구에서는 몸에 자연스럽게 밀착되어 몸을 가시화 하여 드러낼 수 있는 스타일을 바디컨서스 패션스타일이라고 조작적 정의를 내리고자 한다. 세부적으로 한국 사회에서 남성이 몸을 드러내는 스타일이 보편화 되지 않았고, 보수적인 시각이 지배적이기 때문에 몸에 밀착하는 하나의 스타일

로 논의하기에 어려움이 있기 때문에 신축성 소재의 혼용으로 몸에 밀착하여 몸을 드러내는 스타일과 몸에 맞게 재단되어 몸의 외형적 형태를 드러내는 스타일을 종합적으로 논의하였다.

2. 20세기 남성 바디컨서스 패션스타일의 형성

바디컨서스 패션스타일은 탄력적 스트레치 소재의 비약적 발전, 편의를 도모하는 대중의 욕구 증가, 레저문화의 확대에 의한 기능적인 목적의 의복의 필요성이 확대 되면서 대중들에게 유행하게 되었다. 1990년대는 전체적인 패션 경향이 ‘스포츠 룩’으로 흘러감에 따라, 많은 디자이너들은 바디컨서스 패션스타일을 바탕으로 영감과 아이디어를 얻고, 특히 스트레치 소재들에 의한 컬렉션이 다수 진행되었다(Ha, 2000). 이러한 섬세하고 정교해진 소재들은 스트레치에 의한 간편함과 동시에 새로운 디자인을 탄생시키면서 젊은이들 사이에 대거 유행하기 시작하였다.

하지만 바디컨서스 패션스타일은 스포츠참여를 제외한 경우, 보편적으로 여성복을 중심으로 유행하였으며, 남성복의 바디컨서스 경향은 2000년대 초반 유행하기 시작하였다. 남성 바디컨서스 패션스타일은 1900년대에 이르러 스포츠웨어의 대중화에 힘입어 스포츠웨어에서의 탄력성 소재를 사용하며 등장하였고, 기능성과 함께 단순성의 특성을 띄면서 나타났다(Jo, 2001). 이후, 남성복에서도 여성 속옷의 전유물로만 여겨왔던 얇고 비치는 소재를 이용하여 남성 몸을 노출시키거나, 여성복과 근접한 의복 디자인을 선보였지만, 신축성 소재로 몸을 노출시키는 것이 일상복에서는 두드러져 나타나지 않았다.

2000년대 이전 남성복은 특색 없는 윌콕의 실루엣이 대부분이어서 몸을 드러내는 스타일이 제대로 표현되지 않았다. 하지만 2000년대 이후 남

성의 라이프스타일 변화로 인한 남성복 패션시장 성장과 남성 소비자들의 패션에 대한 인식의 전환이 이루어지고 남성복에도 큰 영향을 주게 되었다. 남성 소비자들의 개성화와 패션화가 두드러지면서 여성들의 전유물로 여겼던 몸의 실루엣을 드러내는 패션스타일이 남성들에게도 관심의 대상이 되면서 의복 맞춤새에 대한 중요성이 남성복에도 나타나기 시작한 것이다. 이처럼 남성에게도 몸의 형태를 드러내는 슬림한 실루엣이 받아들여지고 수요가 증가함에 따라 캐주얼 의복뿐만 아니라 정장관련 시장에서도 슬림한 실루엣이 유행하면서 남성복의 기준이 변화하였다.

남성복 실루엣에 대한 미적 기준이 변화하면서 이와 관련된 연구들도 이루어지고 있다. Hogge et al.(1988)의 연구에 의하면 연령에 관계없이 남성 소비자는 디자인이나 스타일, 칼라 등의 요소보다 의복의 맞춤새를 중요하게 생각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남성복의 사이즈는 과거 남성의 키가 큰지, 평균인지, 작은지 등 키에 기준을 두어 왔다면, 최근에는 몸의 부피와 핏의 정도에 따라 그 기준이 다양해지면서 의복의 호칭과 호수도 다양해지고 있다.

종합적으로, 남성 바디컨서스 패션스타일은 2000년대 이후 개인들의 몸 의식이 변화하면서 남성들도 여성 못지않게 외모관리행동 참여가 확대 및 보편화되면서 바디컨서스 패션스타일의 수요가 증가하고 있다. 특히 바디컨서스 패션스타일은 몸의 실루엣을 구현하는 신체 우선형 의복으로, 의복 맞춤새에 관한 개인의 요구를 일차적으로 반영할 수 있어 남성 패션시장에서도 그 수요가 지속적으로 유지 및 증가될 것으로 예상된다.

3. 한국 남성 바디컨서스 패션스타일에 대한 인식

한국에서는 몸의 실루엣을 드러내는 패션스타

일이 사회·문화적 의식에 있어 경시의 대상이었기 때문에 바디컨서스 패션스타일의 영향력은 서구의 패션 문화와 다소 차이가 있었다. 몸을 노출하는 기준은 시대나 사람, 지역마다 상이하고 성별에 있어서도 허용의 범위가 많이 차이 나기 때문이다 (Kim & Lee, 2001). 특히 한국은 유교사상의 영향으로 몸을 드러내는 패션스타일이 정숙성과 관련되어 착장 희망여부와 관련 없이 쉽게 용인되지 못하였다. 더불어 남성의 패션스타일은 여성과 비교하여 외향적이고 성적 매력을 드러내는 것에 대해 더욱 보수적인 입장을 취하고 있었기 때문에 정숙성 인상에 부정적 영향을 미친다고 보았다 (Koh & Kang, 1992).

Choi(1996)의 기사에 의하면 1990년대 남성복은 기준에 권위와 품위를 최고로 여겼지만, 섹시함을 표출하기 위해 남성들의 복식에서도 몸에 밀착되거나 노출하는 스타일의 출현이 빈번해졌다고 설명하였다. 하지만 잘못 입으면 섹시함을 넘어 천박하게 보일 수 있다고 지적하는 점에서 알 수 있듯이, 당대의 남성이 의복을 통해 몸을 드러내는 것에 대한 한국 사회의 의식은 여전히 보수적이었던 점을 확인할 수 있다.

“성적매력을 강조하는 야한 옷차림으로 거리에 나서는 남자들이 울여름 유난히 많이 눈에 띈다. 몸의 곡선을 그대로 드러내는 스펀소재 티셔츠, 몸에 딱 달라붙는 스타일이 유난히 많고 노출도 예전에 비해 심해지고 있다. 그동안 **남성복은 권위와 품위를 최고로 여겼다**. 그러나 요즘 젊은 층들은 감각적이고 야성적인 옷차림을 선호한다. 특히 **바지통이 아주 좁아져 몸의 곡선이 그대로 드러나므로 보기 민망할 정도이다**. 남성패션전문가 조정원씨는 젊은 남자들이 점잖고 평범한 옷에 싫증을 내는 것은 당연하다 그러나 잘못 입으면 **섹시함을 넘어서 천박하게 보일 수 있으므로 신중해야 한다**고 충고한다(Choi, 1996).”

한국에서 남성의 바디컨서스 패션스타일이 1990년대 여전히 부정적인 시각의 대상이었지만, 그 유행여부를 부정할 수 없을 것이다. 1990년대 후반 한국의 대중매체속의 연예인들은 몸을 드러내는 다양한 패션아이템을 착용하고 출연하였으며 이는 대중 사이에서 화제를 낳았다. 동시에 남성 바디컨서스 패션스타일의 소비는 증가하였고, 매체가 대중에게 전달하는 정보가 집단적 몸 의식에 미치는 영향력을 생각하였을 때 남성들의 바디컨서스 패션스타일이 수용이 과거보다 확장되었음을 확인할 수 있다.

남성복의 바디컨서스 스타일 경향은 2000년대가 되면서 자기 표현욕구 증가와 함께 지속적으로 확장되었다. 특히, 아래 기사에서 알 수 있듯이 패션과 몸이 상호작용하며 개성 추구의 장이 되는 변화를 겪게 되고, 남성들도 몸 관리에 더욱 적극적으로 개입하게 되면서 남성이 의복을 통해 몸을 드러내는 것을 새로운 문화현상으로 간주하기 시작하였다(Yoo, 2004).

“자신의 몸을 노출하려면 그만큼 자신의 몸에 자신이 있어야 한다. 몸 만들기에 성공한 몸짱들이 아니고선 노출 패션 대열에 합류할 수 없다. 적당히 탄력 있는 살집과 탄탄한 몸매가 선호대상이다. 이런 몸매를 돋보이게 해주는 스타일이 주류를 이룬다...세미정장이나 캐주얼 의상의 경우도 노출이 심한 옷이 계속 강세이다. 요즘은 여성 못지않게 남성들도 자신의 몸에 대해 깊은 관심을 보이는 실정이다(Yoo, 2004).”

현대에 바디컨서스 패션스타일의 유행은 대중들에게 과거보다 보편적인 스타일이 되었고, 다양한 패션테마가 존재하는 현대 트렌드에 따라 다양한 디자인을 통해 확장되어 나타나고 있다. 하지만 국내의 경우 몸을 드러내는 것에 대한 보수적인 시각이 여전히 잔재하여 서구에 비하여 부정적인 것이 틀림없다. 이는 몸을 드러내는 것에 대한

기준은 시대나 사람, 지역마다 상이하고 성별에 있어서도 수용 범위가 많이 차이 나기 때문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현대에 이르러 몸의 가치가 개인 및 사회 집단에게 점점 높아짐에 바디컨서스 패션스타일에 대한 인식 장벽은 점차 낮아지고 있다. 몸을 드러내는 것이 결코 수치스러운 일이 아니라는 대중의 의식이 확대되고 동시에 개인의 만족을 증가시키는 방향으로 패션산업 또한 변화되고 있기 때문이다.

III. 연구방법

본 연구는 문헌연구와 Giorgi(1994)의 현상학적 연구방법을 적용한 질적 연구를 병행하였다. 본 연구에서 바디컨서스 패션스타일 수용 정도에 따른 요인 및 활용 경향, 특수성을 분석하기 위해 선택한 연구 방법은 다음과 같다.

1. 연구범위 및 구성

본 연구에 참여하고 있는 연구 대상자의 몸 관리행동 행태를 살펴보면, 헬스를 이용해서 몸을 관리하고 있는 사례는 19명이고, 싸이클링에 참여하는 사례는 9명, 두 종목에 모두 참여하는 사례는 4명 이었다. 연구 대상자의 연령은 20~30대로 한정하였으며, 구체적으로 서울특별시에 거주하고 있는 20대 22명, 30대 11명으로 총 32명 이었다. 본 연구의 대상자를 선정한 경로를 보다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첫째, 연구의 몸 관리행동의 범위를 헬스와 싸이클링에 현재 참여하고 2회 이상 3개월 이상 지속한 대상으로 한정하였다. 문화체육관광부의 2012년도 국민 생활체육 참여 실태조사에 의하면 주 2회 이상 참여하는 스포츠 활동에서 상위 세 종목은 남성의 경우 보디빌딩 헬스(32.6%), 축구

(13.7%) 사이클링(11.7%)으로 나타났다(Ministry of Culture, Sports and Tourism, 2013), 최근 국내외에서 국민 참여가 많아진 헬스와 사이클링을 대상으로 연구를 진행하였다. 사이클링의 경우 2010년 남성기준 5.5%에서 2012년 11.7%까지 참여 인구가 증가하였고, 더불어 사이클링은 몸에 밀착되고 신체의 굴곡을 그대로 드러내거나, 노출되는 사이클링 웨어를 착용한다. 이에 바디컨서스 스포츠웨어 착장에 따라 바디컨서스 패션스타일에 대한 의식에 대해 살펴보고자 하는 본 연구에 적합할 것이라고 판단하였다. 헬스와 사이클링에 참여하며, 참여빈도는 주 2회 이상 3개월 이상 지속한 대상으로 선정하였다.

둘째, 연구대상자의 연령을 20~30대로 한정하였다. 문화체육관광부의 2015년도 국민 생활체육 참여 실태조사에 의하면 스포츠자 연령 중 20대(54.4%)와 30대(53.4%)에서 '체중조절 및 체형관리를 위해 체육활동에 참여한다'는 응답이 높게 나왔다(Ministry of Culture, Sports and Tourism, 2016). 이는 다른 연령 집단에 비해서 가장 활발히 몸을 관리하는 시기에 있으므로, 몸의 외형적 형태가 몸을 관리하는 목적에 미치는 영향력이 강하게 작용하며, 이러한 특징은 몸에 대한 의식이 가장 폭 넓고 민감하게 작용하고 있는 연령 집단으로 판단했기 때문에 연구 대상으로 선정하였다. 더불어, 현재 패션 산업에 강한 영향력을 행사함과 동시에 패션스타일에 민감하게 반응하는 집단으로, 몸을 관리하는 것과 패션스타일의 상호연관성을 살펴보기에 적절하다고 판단하였기 때문이다.

2. 연구방법 및 절차

선행연구(Lee, 2017)의 한국 남성의 몸 이미지와 몸 관리 행동에 관한 연구의 후속연구로 진행되었으며, 현상학적 연구를 설계하여 문헌연구에서 질적 연구로 순차적으로 진행하였으며, 선행 연구

내용을 바탕으로 추가적인 질문지를 개발하여 심층 면접을 진행하였다. 바디컨서스 패션스타일 수용도와 활용경향을 분석하는 질문 내용은 Frith and Gleeson(2004)의 남성의 몸 이미지와 의복에 대한 논의를 바탕으로 질문지를 준비하였으며 해당 내용은 예비 심층 인터뷰를 결과를 바탕으로 수정 및 보완하여 진행하였다.

본 연구에서는 현상학적 질적 연구의 관점을 기본으로 하였으며 다양한 현상학적 질적 연구 분석 방법 중에서 Giorgi(1994)의 분석방법을 활용하였다. 연구 자료에 대한 기술을 중시하고, 기술에 대한 심층 분석을 통해 연구 대상자의 개별적인 삶 속에서 경험의 의미와 본질 구조를 밝히는 데 초점을 둔다. 따라서 몸을 관리하는 남성들의 몸 관리행동의 동일한 경험을 바탕으로 몸에 대한 의식의 변화와 이를 바탕으로 바디컨서스 패션스타일의 수용도와 활용경향을 밝히고 바디컨서스 패션스타일의 특수성을 파악하고자 하는 본 연구의 목적을 고려할 때 적합하다고 보았다.

Giorgi(1994)의 현상학적 연구방법을 적용한 첫 번째 단계로 연구 대상자가 진술한 전체 내용에 대한 총체적인 의미를 파악하기 위해 기술한 전체 내용을 반복적으로 읽고, 자료 속에 들어있는 단어를 확인하는 것뿐만 아니라, 연구 대상자가 경험한 상황의 흐름을 전체적으로 파악하였다. 두 번째 단계는 진술내용의 의미 단위를 구분을 위해 부분적 의미들로 구성되어 있는 기술문의 전체 의미를 파악할 수 있는 부분적 의미 단위를 구별하였다. 의미 단위 분석에 있어 작위적 관점을 배제하기 위해 연구하고 있는 현상에 초점을 맞추어 '의미 단위'를 구분 짓겠다는 구체적인 목적을 가지고 의미 단위를 구분 하였다. 세 번째 단계는 앞서 의미 단위를 구분한 진술을 대표적인 학문적 용어로 변형하였다. 네 번째 단계는 변형된 의미 단위를 구조로 통합 하였다. 이를 위해 진술문의 얹혀있는 의미에 따라 관련된 구성 요소들을 재편

성하고, 실제 경험의 유형을 정확하게 설명해주도록 배열하고, 변형된 의미 단위 속에 포함되어 있는 개인이 경험한 사건의 심리학적인 구조를 일관적인 기술로 통합 하였다.

IV. 바디컨서스 패션스타일 수용 정도와 발현의 특수성

바디컨서스 패션스타일은 몸의 실루엣을 드러내는 기본적인 특징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몸 관리행동에 따른 몸 의식 변화에 따라 그 수용정도의 변화를 가져왔다. 본 연구 참여자들은 몸 의식 변화에 따라 개인의 의복 선택에 있어서 몸을 드러내고 활용하고자 하는 자기표현 욕구가 상승했다(Lee, 2017). 그럼에도 불구하고, 연구 참여자들의 바디컨서스 패션스타일의 수용정도에는 차이를 보이고 있었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어떤 요인이 바디컨서스 패션스타일 수용 정도에 영향을 미치는지에 대해 세부적으로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1. 바디컨서스 패션스타일 수용 정도와 발현 요인

1) 바디컨서스 패션스타일의 수용·선호

바디컨서스 패션스타일을 수용·선호하는 그룹의 바디컨서스 패션스타일 발현의 촉진 요인은 크게 두 가지로 나타났다. 첫 번째, 몸에 대한 자신감 상승으로 개선된 외형적 몸의 실루엣을 과시하고자 하는 특성이었다. 이는 연구 참여자들이 몸의 외형적 개선을 통해 성취한 심리적 자신감과 연관 지어 볼 수 있다. 두 번째는 몸에 대한 민감성이 증가하면서 개인의 몸에 대한 만족감을 고양시키고 의복을 통해 표현되는 개인의 몸의 표현에 대한 긍정적 의식의 확대였다.

본 연구 참여자들은 자신의 몸의 외형적 특성

에 대해 매우 민감하게 반응하는 특성을 보였다. 이들은 몸 관리 행동을 통해 신체적 성취를 이룸으로써 자신감이 향상하고 몸을 드러내고자 하는 욕구를 반영하여 바디컨서스 패션스타일을 수용하고 있었다. 동시에 자신의 몸을 타자와의 관계 속에서 돋보이고 자랑을 위한 과시의 수단으로 활용하고 있었다. 즉, 연구 참여자들은 의복을 통해 개인의 몸 관리 방식이나 자신의 ‘자기 관리가 잘 된 사람이다’와 같은 사회적 능력에 대한 새로운 가치를 부여하기 위해 바디컨서스 패션스타일을 활용하고 있었다.

**“남자의 선 같은 거를 잘 빠져 보이게 해주고
핏대로 딱 맞춰 입으면 몸을 부각시켜 주잖아요
그러면 아 저 사람 몸이 참 좋구나 연상이 되고
해서 좋은 것 같아요. 이왕 아침마다 열심히 운동
하는데... 왜 아침마다 찻덩이를 들고 있겠어요. 제
가 좋아서 하는 건 맞는데 이왕 하는 거 남들이
알아주면 좋잖아요”** (김재현, 대학생, 24세)

바디컨서스 패션스타일 발현의 두 번째 요인은 개인 내면의 만족감을 가시화하여 표현하고자 하는 개인적 욕구에 기반을 둔다. 남성들은 몸의 개선된 변화를 성취함으로써 개인 스스로 몸에 대한 만족감이 향상되고, 패션을 활용함에 있어서도 최대한 몸의 외형적 실루엣을 드러낼 수 있는 바디컨서스 패션스타일을 통해 몸을 존중하는 의복태도가 확장 된 것이다.

바디컨서스 패션스타일을 수용하는 집단은 과거에 자신의 몸에 대한 불만족으로 시도하지 않았지만, 몸이 개선된 이후 개인 스스로 몸에 대한 만족감이 향상되고 자기만족을 충족시키기 위한 스타일 표현으로서 바디컨서스 패션스타일을 활용하고 있었다. 앞서 논의 하였던 개선된 몸의 외형적 실루엣을 타자와의 관계 속에서 인정받고 두드러져 보이고자 하는 몸의 과시적 표현일 뿐만 아니라, 개인이 스스로 더욱 자신의 몸에 주목하고 관

심을 가짐으로서 몸에 대한 개인의 자기만족적 표현이 그대로 발현되고 있다는 것을 의미한다. 더불어 그들은 몸의 외형적 형태를 비롯한 특성에 매우 민감하게 반응하고 살핌으로써, 패션스타일 발현에 있어서도 몸의 중요성과 존중이 크게 확대되고 있었다. 바디컨서스 패션스타일을 통해 스스로의 몸을 일상에서도 확인하고 의식함으로써 개인의 몸에 대한 만족감은 더욱 고양되고 있었다.

“제가 똑같은 옷을 입어도 특히 셔츠나 티 같은 거는 제가 **달라붙는 스타일의 옷을 입어요**.. 제 몸이 장점이라고 말하기엔 뭐하지만 제 특성을 살릴 수 있게 어느 정도 라인이 살릴 수 있는 옷들을 많이 입는데 그런 부분에 있어서 운동이 되 있는 몸이랑 안 되어 있는 몸이랑 남들은 몰라도 제 스스로 차이가 느껴져서 그런 게 자신감 향상에도 도움이 되고” (유영진, 대학생, 24세)

2) 바디컨서스 패션스타일의 선택적 수용

몸 관리행동을 통해 몸의 긍정적인 변화를 성취함에도 불구하고 바디컨서스 패션스타일을 선택적으로 수용하는 그룹은 의복이 개인의 몸 실루엣과 특성을 표현하는 중요한 요소임을 인식하고 있었지만, 바디컨서스 패션스타일을 수용하는 그룹과 비교하여 패션스타일의 발현에 있어 신체의 편안함을 우선시하고 몸을 패션보다 존중하는 가치관에 기반하고 있었다. 즉, 바디컨서스 패션스타일 발현에 있어서도 몸을 부각하는 것이나 은폐에 의미를 두지 않고 심리적, 신체적 안정감과 편안함을 추구하는 것이다.

바디컨서스 패션스타일을 선택적으로 수용하는 그룹은 몸을 과시하거나 드러내는 목적으로 의복을 착용하지 않는 것을 지향하고 있었다. 이는 패션과 몸을 분리하여 패션스타일을 발현하고 몸의 중요성보다 패션을 중시하는 경향 또는 몸과 패션을 동등하게 무게를 두고 있다는 것을 의미한다. 또한 바디컨서스 패션을 선택적으로 수용하는 것

은 개인이 자신을 패션을 통해 표현함에 있어 몸의 편안함의 중시 즉, 몸을 우선시 하여 활용하고자 하는 의식이 발현되기 때문이다. 이처럼 바디컨서스 패션스타일이 몸의 안정감을 방해한다는 부정적 인식이 바디컨서스 패션스타일 발현의 방해요인으로 작용하고 있었다.

“저는 한창 스키니 유행할 할 때 도 안 입었거든요 입어본적도 없는데 상상해 봤어요 제가 그 안에 들어가 있으면 어떤 기분일까? **별로 좋은 기분 아닐 거 같아요** 제가 하의 같은 경우는 다리가 두꺼운 편인데 **하루 종일 걸어 다녀야 하는데 그럴 때마다 어디 터지지 않았나 그런 생각 들 거 같아요 그냥 너무 불편할 것 같아요**” (강민호, 대학생, 21세)

연구 참여자들은 몸 관리행동이 지속되면서 몸의 외형적 변화를 가져왔고, 대표적인 몸의 가지적 변화로는 근육증가를 들 수 있다. 개개인에 따라 몸을 부위별로 다르게 향상시키고자 하는 욕구를 반영한 경우도 있었지만 근육증량이 높게 나타날수록 바디컨서스 의복을 착용할 경우 신체적 불편함을 호소하기도 하였다. 특히 이들은 몸에 대한 민감성이 확대되면서 외형적 실루엣에 대한 민감성뿐만 아니라 신체적 효용성에 대해서도 그 관심이 높아졌다.

“저는 오히려 예전에는 셔츠도 핏하게 입고 그랬거든요? 근데 제가 **몸이 크니까 붙는 바지 같은 거는 처음에 입을 때 고통스럽거든요** 그렇다고 처음에 좀 편하게 입으면 바지가 늘어나는 것 같기도 하고 그래서 허리 맞으면 사고 그러기는 하는데 **이번 여름에는 한 번도 안 입게 되긴 했어요 오히려 시간이 지나면서 좀 헐렁하게 편하게 입는 방향으로 변한 것 같아요**” (주진우, 대학생, 26세)

바디컨서스 패션스타일을 선택적으로 수용하는 집단의 바디컨서스 패션스타일의 두 번째 영향 요

인은 의복을 통해 몸의 특성을 표현하고자 하는 개인의 욕구에 기인하여 의복을 선택하지 않고 몸의 특성을 통해 의복의 형태를 결정 짓는다고 인식하는 경향이다. 이와 같은 연구 참여자들은 의복의 실루엣을 통해 몸을 가시화 하는 것에 대해 긍정적 혹은 부정적 의식으로 나누어 인식하는 것은 아니었다. 이들은 실제로 몸의 개선을 통해 변화된 몸은 의복의 실루엣을 굳이 드러내어 발현하지 않더라도 몸의 형태가 의복의 형태를 결정 짓는다고 인식하고 있었다. 개인이 특별하게 패션요소를 통해 몸을 치장하고 가꾸지 않아도 몸의 개선 자체가 의복 스타일의 자연적인 변화를 가져올 수 있다고 의식하고 있었기 때문에 바디컨서스 패션스타일의 수용정도 및 선호 여부에 크게 의미를 두고 있지 않았다.

“원래 큰 옷을 선택하기도 하는데 **진짜 몸 편**
찮은 사람은 대충 입어도 좋다고 보니까 일부러
드러내는 것이 굳이 필요 없는 것 같아요” (이정
근, 대학생, 27세)

3) 바디컨서스 패션스타일 배제 · 불호

현대는 개인의 표현성과 소비가 강조되면서 몸을 하나의 프로젝트로 인식하는 문화로 인지되고 있다. 따라서 몸의 개선과 같은 성취결과를 획득한 남성들은 패션을 통해 개인의 몸을 과시하거나 몸에 대한 의식이 높았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의복 선택에 있어 개인의 몸을 왜곡하거나 은폐할 수 있는 시도를 통해 몸의 가시화를 축소하려는 시도들이 발견되었다. 바디컨서스 패션스타일의 수용정도는 몸에 대한 태도와 만족도와 관련되어 발생이 되기도 하지만, 개인이 사회관계 속에서 습득한 사회·문화적 의식의 작용은 바디컨서스 스타일을 발현의 방해요인으로 작용하고 있었기 때문이다.

특히, 몸을 지속적으로 감시하고 제재하려는 의

식은 자기 자신의 몸에 대해 지속적으로 관찰하며, 개인의 몸을 왜곡하여 살피거나 단점에 대해 더 크게 의식하는 경향을 보였다. 이러한 몸 의식의 영향아래 이 그룹의 연구 참여자들은 자신의 신체적 단점이 부각되는 것에 대한 두려움이 있었다. 즉, 이들은 바디컨서스 패션스타일 발현결과로 타인 시선이 자신의 몸에 집중되는 것에 대한 심리적 불편함을 느끼고 있었으며, 이는 바디컨서스 패션스타일 발현의 방해요인으로 직결되고 있었다.

“요즘 머슬핏이라고 몸 좋은 사람들이 몸매가
드러나게 입는 그런 옷들 **내가 몸이 그렇게 까지**
는 안 되니까 못 입고요 제가 하체가 다른 사람에
비해서 **굵은 편이어서** 스키니 까지는 아니더라도
핏감이 좋은 바지를 입으려고 하면 너무 안 어울
려서 도전해 보고 싶었지만 포기했죠” (강경준,
건축가, 34세)

몸을 드러내는 것에 대한 거부감은 몸의 단점이 타인에게 드러나는 것에 대한 거부감도 있었지만 자신의 몸 자체를 드러내는 것에 대한 부정적 의식이 내재화된 경우도 있었다. 이러한 진술은 개인의 몸의 만족정도와도 관련이 있었지만, 사회·문화적으로 남성의 몸이 공적 장소에서 가시화 되는 것에 대한 부정적 혹은 보수적인 시각이 체화된 결과로 볼 수 있다. 특히 한국 남성들은 여성들이 몸을 드러내는 옷을 착용하는 것에 대해서는 개성으로 인정하거나 긍정적인 반응인 것과 달리 남성이 몸을 드러내는 스타일 발현에 대해서는 보수적인 시각이 강하게 내면화 되어 작용하고 있었다.

“옷은 저 **좋자고** 입는 것도 있지만 **보여주기**
좋으라고 입는 것도 있다고 보거든요” (이원준,
회사원, 33세)

의복을 타인으로부터 인정받는 중요한 수단으

로 인식하고 있었다. 이는 사회적 관계의 발달과 유지가 중요한 20~30대의 인식과 매우 깊게 연관하고 있었으며, 한국 사회의 보수적인 문화적 규범에 암묵적으로 동조해야 한다는 심리가 발현되고 있었다. 특히 바디컨서스 패션스타일을 배제하는 요인으로는 타인의 시선 및 때와 장소를 가려 의복을 착용해야 한다는 의식 때문이었다. 특히, 한국 사회의 보수적인 문화적 규범 중에 두드러지게 나타난 것은 정숙성과 관련된 인식에 깊게 연관되어 있었다.

주요 생활공간이 직장 환경인 30대 연구 참여자들의 경우 직무 생활에 있어 바디컨서스 패션스타일이 정숙성에 위반된다고 인식하거나 제재를 경험한 경우가 많았다. 이는 여전히 한국 직무 환경에서 몸과 의복에 대한 암묵적 규범이 존재하고 있으며, 개인에게 강력하게 영향을 미치고 있음을 의미 한다.

“제가 학교에서 수업할 때 옷이 조금만 타이트 하면 여학생들이 셔츠 열어봐도 되냐고 농담하는 애들이 있어요 그런 거 가지고 동료 선생님들이 저한테 학교에서 그런 옷 입지 말라고 하셔서 의식하고 수업 할 때는 일부로 피진 옷을 입어요 그런 외부적인 갈등 때문에 제가 좀 더 보수적이 된 것 같아요” (최지원, 교사, 30세)

바디컨서스 패션스타일 발현에 있어서 한국 사회에 잔재된 성별 이미지는 연구 참여자들이 바디컨서스 패션스타일을 배제하는 주요 방해요인으로 도출되었다. 한국 남성들은 한국 사회가 인정하고 허용하는 남성의 의복스타일의 범위에 대해 민감하게 지각하고 있었으며, 개인의 심리적 차원에서 중요한 결정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었다. 특히 몸에 밀착하거나 몸을 노출하는 특성의 바디컨서스 패션스타일을 여성스러운 스타일 혹은 여성만이 착용하는 스타일로 인식하는 패션스타일에 대한 성별 고정관념이 작용하고 있었다.

한국 사회에서는 이러한 성 이분법적 사고가 다소 완화 되었다고 믿어져 왔다. 지난 몇 년 사이 여성적인 이미지를 차용하는 크로스 섹슈얼이나 패션과 외모를 중시하는 메트로 섹슈얼과 같은 용어가 더 이상 낯선 용어가 아니었기 때문이다. 하지만 남성의 몸이 신체적 능력에 기초하고 여성은 몸의 매력에 기초하여 평가되는 의식이 패션스타일 표현에도 잔재하여 나타나고 있었다.

“요즘 상황에서 약간 위험한 발언일 수 있는데 여성스럽다, 남성스럽다 이런 표현이 있잖아요. 이런 말 쓰면 안 되지만 저는 개인적으로 여성분들은 여성스럽게 남성분들은 남성스럽게 입는 걸 선호해요 흔히 남자들이 핑크색을 입는다든지, 딱 붙는 옷을 입는다거나 그런 게 꺼려지는 거 같아요” (안재진, 대학생, 24)

종합적으로, 한국 남성들의 바디컨서스 패션스타일 수용정도의 차이에 영향을 미치는 발현요인을 구체화하면 다양한 촉진 및 방해 요인이 발견된다. 바디컨서스 패션스타일의 촉진 및 방해 요인은 몸 의식 발현요인과 같은 매커니즘으로 개인이 몸에 대해 발현되는 개인적 영향요인과 사회·문화적 영향요인으로 구체화 되어 나타났다. 이에 연구 참여자들의 바디컨서스 패션스타일을 수용하는 경험이 상승, 유지 또는 축소되는 경우에 따라 집단을 나누고 각 그룹의 공통된 진술들을 바탕으로 스타일 발현의 영향 요인을 알아 본 결과 각 그룹은 바디컨서스 패션스타일을 일상복으로 수용하고 선호하는 방식으로 변화된 그룹, 선택적으로 수용하는 그룹, 배제하고 선호하지 않는 그룹으로 구분되었다.

바디컨서스 패션스타일을 일상복으로 수용하고 선호하는 그룹 A는 <Figure 1>과 같이 개인의 욕구에 기인하는 자기표현욕구와 같은 개인적 영향요인이 스타일 발현에 크게 영향력을 행사하고 있었다. 바디컨서스 패션스타일을 선택적으로 수용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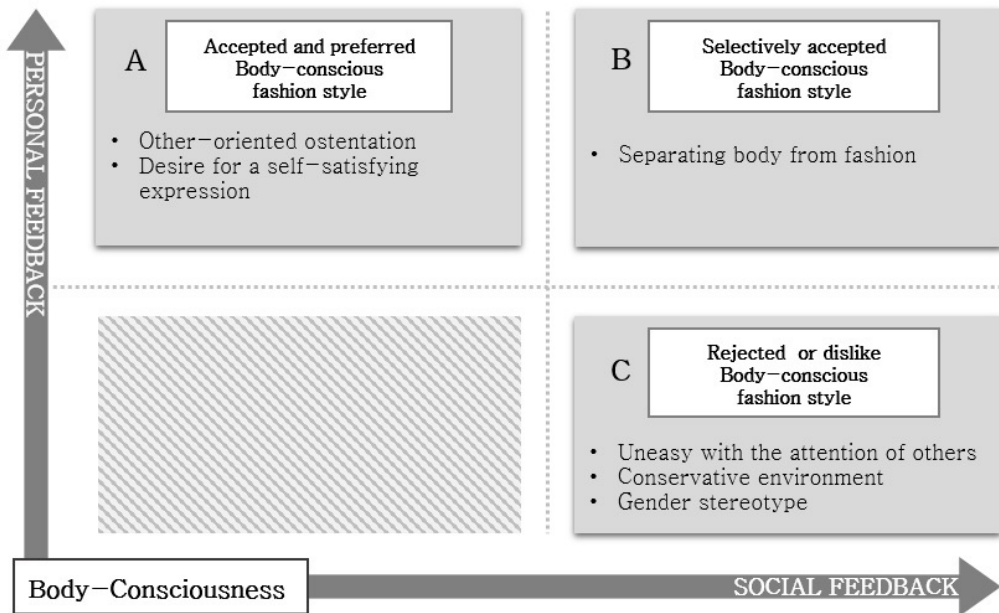


Figure 1. Factors that influence the acceptance of body-conscious fashion style.

하는 그룹 B는 개인적 영향요소와 사회·문화적 영향요인이 개인에게 복합적으로 작용하고 있었다. 바디컨셔스 패션스타일을 배제·불호하는 그룹 C는 개인적인 영향요인 보다 사회·문화적 요소에 더 크게 영향을 받는 것으로 나타났다.

<Figure 1>은 바디컨셔스 패션스타일 수용정도에 따른 영향 요인과 하위구성 요소를 도표화한 것이다.

2. 한국 남성의 바디컨셔스 패션스타일 발현의 특수성

본 절에서는 한국 남성들이 바디컨셔스 패션스타일을 어떠한 선택기준을 가지고 선택하며 활용하며 이에 근거하여 바디컨셔스 패션스타일 발현에 있어 어떠한 특수성이 있는지를 확인하기 위해 개인적 경험 및 감정에 따라 진술을 분류하여 자료를 분석하였다. 이를 위해 바디컨셔스 패션스타

일 활용경향을 해석하는 과정에서 나타난 표현의 어휘를 분석하여, 바디컨셔스 패션스타일을 통해 개인이 추구하는 이미지 및 의미를 분석하여 특수성을 파악하고자 하였다.

소비자의 의복선택 및 활용 방법은 개인의 특성이나 상황이 제한되어 있지 않고 선택요인의 분류기준이 불분명하면 각기 다른 결과가 나타날 수 있으므로, 바디컨셔스 패션스타일을 몸 의식이 변화하면서 수용·선호하는 그룹 15명의 연구 참여자들의 진술로 한정하여 자료를 분석하였다.

바디컨셔스 패션스타일을 수용·선호하는 그룹 참여자들의 특징은 의복 선택에 있어 몸이 가시화되어 표현되는 것을 매우 중요시 하고, 개인의 몸에 대한 의식이 긍정적으로 형성되어 있어 바디컨셔스 패션스타일이 자신의 개성된 몸을 더욱 긍정적으로 발현하게 하는 스타일로 인식하고 있었다. 본 분석 결과는 응답자 개인들의 패션취향과 사회·문화적 배경의 차이 및 체화 정도에 따라 바디

컨서스 패션스타일 활용경향이 다소 개인화되어 그 형태는 다양하게 나타났지만, 공통적으로 제시하고 있는 스타일 발현에 기반을 두어 분류하여 분석 하였다.

바디컨서스 패션스타일의 선택과 활용에 대한 구체적 경향을 파악하기 위해 패션디자인 요소인 실루엣, 색상, 소재 및 디테일로 구분하여 분류하였으며, 더불어 인터뷰 참여자들의 일상복 사진을 동의하에 제공받아 공통적으로 제시되는 진술과 시각적 자료를 종합적으로 활용하였다. 또한, 한국 남성의 바디컨서스 패션스타일 활용경향에 관한 인터뷰를 분석함에 있어 각 아이템을 설명하는 진술에 나타난 어휘들을 정리하여 바디컨서스 패션스타일을 통해 드러내고자 하는 이미지 및 의미를 파악하고자 하였다.

패션을 통해 몸을 드러내는 것에 있어서도 몸을 평면적으로 가시화 하는 기존의 의미보다 개인적 차원의 의미를 전달하고자 하는 특징을 보였다. 하지만 현대 한국 사회의 사회·문화적 영향은 개인이 몸에 가지는 의식의 주체성을 축소시키고 사회·문화적 틀 안에서 개인의 의식이 체화 되는 복잡한 관계 특성을 통해 진행되고 있었다. 한국 남성들은 바디컨서스 패션스타일 발현에 있어서 상당히 제약적인 발현이 이루어지는 공통적 특성을 보이고 있었다.

몸의 의미가 한국 남성들의 일상에 있어 매우 중요한 의미로 자리 잡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다양한 제약이 존재하고 있었기 때문에 바디컨서스 패션스타일을 통해 발현하고자 하는 개인의 복합적인 의미들을 맥락적으로 파악하고자 하였다. 한국 남성들이 바디컨서스 패션스타일을 발현함에 있어 개인이 경험한 몸 의식과 관련된 복합적인 경험과 의식 변화의 관계특성을 바탕으로 도출한 바디컨서스 패션스타일 발현의 특수성은 다음과 같다.

1) 내면화된 집단의식에 의한 스타일 결정

현대 한국 남성들이 몸을 관리하고 몸을 드러내는 의복을 착용함으로써 개인의 정체성을 표현하는 것에 있어서 개인의 결정권이 높아졌다. 하지만 몸 관리행동을 실천하는 한국 남성들은 자신의 몸에 대한 긍정적 의식수준이 높아졌음에도 불구하고 내면화된 집단적 가치로 인해 개인의 바디컨서스 패션스타일 발현에는 상당한 제약 요소가 발견되었다.

현대는 패션을 통한 자기표현에 있어 고정관념에 얽매이지 않는 개방적이고 자유로운 감성을 추구하고 있다고 하지만 한국의 사회·문화적 의식은 집단구성원으로서의 역할을 중시하는 남성에게 개인의 주체적 패션스타일 발현은 쉽지 않았다. 본 연구 결과, 응답자들의 몸에 대한 의식이 패션으로서 표현됨에 있어 그 중요성은 매우 확대되어 나타났으며, 특히 몸 관리행동을 통해 개선된 몸이라는 성취결과를 습득한 남성들에게는 몸의 과시 욕구가 패션으로 반영되어 몸의 실루엣을 드러내는 바디컨서스 패션스타일에 대한 욕구가 증대되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한국 남성은 바디컨서스 패션스타일 발현에 있어서 주체적으로 개인화하지 못하고 보수적인 한국 사회·문화 의식에 크게 영향을 받아 바디컨서스 패션스타일을 재구성하여 결정짓고 있었다.

특히 한국 남성들은 몸을 드러내는 실루엣에 대한 욕구에 기인하여 바디컨서스 패션스타일을 발현한 경험이 있는 경우에도 사회 집단에 의해 제재를 받거나 타인의 제재에 의해 시도 횟수가 줄거나 아예 자신의 선호 실루엣을 변화시키기도 하였다. 몸의 외형적 형태를 그대로 드러내는 스타일이 여성스럽다 혹은 꼴불견이라는 이유를 들어 만류하는 동료 집단이 있기 때문이다.

이 뿐만 아니라 사회·문화적 또는 타인의 제재 없이도 내면화된 집단의식이 바디컨서스 패션스타일에 대해 부정적으로 의식하고 선택적으로 수용하거나 스타일 선택에 스스로 제재를 가하기도 한

다. 이는 집단이 정해 놓은 암묵적 규범이 개인에게 내재화되어 작용하며 개인은 사회관계망의 가치를 추구하는 것을 개인의 주체적 스타일 발현보다 중요하게 의식하고 있음을 의미한다.

“남자들이 셔츠를 근육이 잘 드러나게 껴하게 입는 거는 포말한 자리에는 어울리지 않는다고 생각해요. **선입견일수도 있지만 옷을 통해 몸매를 과하게 드러낼 정도로 운동한 남자들은 사회적인 위치나 이런 것들이 아예 극단적으로 높은 경우가 아니면 사회적 위치가 낮은 확률이 많으니까요**”
(서형욱, 회사원, 34세)

한국 남성들은 집단의식이 매우 강한 집단이기 때문에 몸을 관리하여 근육을 만드는 것을 통해 남성다움을 추구하고 이를 미덕으로 내세우는 사회적 분위기에 비교적 긍정적으로 동조 한다. 반면, 바디컨서스 패션스타일이 여전히 한국 사회에서 부정적으로 인식됨에 따라, 사회적 시선을 아랑곳하지 않고 개인의 스타일로 발현함에는 어려움이 따른다. 특히, 한국 남성들은 바디컨서스 패션스타일 표현에 있어 집단의 시선에 부담을 느끼며 가꾸어진 몸을 어떻게 드러낼 것인가에만 집중하는 것이 아닌 본인을 바라보는 시선을 어떻게 중화시킬 수 있는가에 대해 의식하고 있었다. 즉, 몸의 변화를 부각시키기 위한 스타일 표현에만 집중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패션으로 표현된 몸을 통해 타인 및 집단과 어떻게 소통할 수 있는가에 대해 전략을 세워 스타일을 연출하고 있는 것이다.

“**몸을 드러내는 방식에 있어서 무게가 여성과 남성 사이에 완전히 다르게 나타나는 건 아니지만** 남자들은 몸을 드러내는 방식에 무게가 다른 것 같아요. **몸을 그대로 드러내는 것보다 어떻게 더 테일을 살려서 과하지 않게 드러내는가에 달려 있는 것 같고요**” (박강성, 회사원, 34세)

종합적으로, 바디컨서스 패션스타일은 개인의 바디컨서스 패션스타일 발현 욕구와 사회·문화적 집단의식에 의해 형성된 가치 간에 발생하는 내외적, 내재적 조화 또는 갈등으로 인해 바디컨서스 패션스타일 발현 형태는 가변적인 특수성을 지닌다.

2) 패션스타일에 의한 이상적인 몸의 재구성

사회·문화적 기준이 개인의 몸 의식에 매우 강하게 작용하여 몸 관리 행동의 실천의 매개가 되는 것은 확실하다. 하지만 개인의 몸 의식은 주관적인 것으로 자신의 몸에 관심을 가지고 몸 관리 행동은 개인 스스로 선택하고 조정하여 실천하기도 한다. Lee et al.(2010)의 연구 결과에서 전반적으로 한국에서 이상적으로 여겨지는 남성 체형이나 미국에서의 이상적 남성 체형은 신체크기나 근육의 발달도 면에서 차이가 없는 것으로 보이나 미국에서보다 한국에서 이상적으로 여겨지는 체형의 범위가 좁은 것으로 보인다고 하였다. 이러한 결과와 본 연구 참여자들의 진술과 복합적으로 살펴본 결과 패션스타일 발현에 있어서의 이상적인 몸은 각 개인이 선호하는 몸 이미지와 차이를 보이기 때문이라고 볼 수 있다.

오늘날 사회·문화적 현상들에 의해 몸의 이미지가 이상적 기준으로 표준화된 것 같아 보였지만, 실제 남성들 개인이 선호하는 형태와는 다르거나 몸을 관리하게 하는 실천행동에 강력하게 작용하고 있지는 않았다. 하지만 주목할 만 한 점은 자신의 패션 발현에 있어서의 몸은 매우 대상화되고 사회가 형성한 보편화되고 표준화된 이상적인 몸 이미지가 실제 패션스타일 발현에 있어 방해 요소가 되고 있다는 것을 의미한다.

“저는 오히려 옷 스타일 때문에 운동하다 보면 **아 너무 키우면 바지가 안 들어가는 거 아니야?** 이런 생각을 한 적이 있어요 일단 **옷은 슬림한 몸이, GD처럼 슬림한 몸이 잘 어울리는데 아니면**

모델들 다 말랐잖아요? 그래서 그런지 옷걸이라고 해야 하나 옷은 너무 뽀뽀 안 어울리는 것 같아요. 그런 게 운동하면서 걱정이지요” (이정근, 대학생, 27세)

각 개인들이 목표하는 이상적인 몸 이미지는 개인의 신체적 특성에 따라 다양하고 더욱 구체적으로 나타났다. 몸 관리행동을 실천하게 된 계기를 살펴보면 특정한 대상을 이상적으로 생각하기 보다는 함께 운동하는 동료 및 주변 인물들에 대한 동조와 개인의 신체적 특성과 가치관이 영향력을 행사하고 있었다. 추구하는 이상적인 몸 이미지는 개인화 되어 다양한 형태로 나타났지만, 몸 의식을 패션으로 발현함에 있어서는 옷이 잘 어울리는 몸에 대한 고정적 의식이 발현되는 것이 특징적 이었다.

한국 남성들은 패션스타일 발현에 있어서는 개인이 가지는 고유한 몸 이미지 보다 패션스타일이 규정하고 있는 몸 이미지에 크게 영향을 받고 있다는 것을 의미한다. 남성들이 생각하는 옷이 잘 받는 이상적인 몸은 키가 크고, 슬림 하며 팔다리가 길고 어깨는 역삼각형으로 벌어진 반면, 하체는 근육 없는 슬림한 형태였다.

결국 남성들은 개인 스스로 추구하는 이상적인 몸에 대한 성취를 달성한 경우에도 사회문화적으로 형성된 패션스타일이 규정하고 있는 이상적 몸에 본인이 부합하지 않은 경우 몸을 과시하지 않고 은폐하거나 분리하는 결과로 나타났다. 몸의 표준화 틀 안에 편입되지 않은 연구 참여자들은 바디컨서스 패션스타일 표현에 매우 소극적인 자세를 취했다.

“제가 하체 운동을 많이 하다보니까 좀 두껍거든요. 그래서 스키니 진 같은 거 입을 때는 **아무래도 저한테 안 어울리는 거 같아서 그때는 스트레스를 좀 받았던 것 같아요. 옷빨이 잘 받으려면 키가 크고 다리가 길고 다리가 너무 두껍지 않아서**

옷에 핏을 망치지 않는 그런 몸이 옷빨을 잘 받는다고 생각하거든요. 루즈한 옷을 입을 때는 그렇게 상관없는데” (김지훈, 사진작가, 34세)

한국 남성들의 이상적인 몸 이미지 구성에 중요한 영향을 미치는 요소는 패션 매체가 생성한 이미지의 내면화뿐만 아니라 집단 구성원 혹은 개인이 속해있는 환경과 가치관이다. 한국 남성들의 이상적 몸 이미지는 여성들과 비교하여 비교적 다양하게 나타난다. 예를 들어 사회문화적 요구 아래 ‘남성다운’, ‘강한’, ‘부피가 큰’ 등과 같은 가치를 추구하거나 또는 개인이 추구하는 가치를 건강한 몸에 기반을 두어 체력적으로 원활한 활동에 기인하는 몸을 추구하는 등 개개인이 추구하는 몸 이미지와 가치정도는 개인화 되어 달리 나타났다. 반면 패션스타일 발현에 있어서는 패션 매체가 생성하고 있는 이상적 이미지가 패션스타일 발현에 있어 적절하다고 강하게 내면화 되어 있었다.

한국 남성이 패션스타일 발현에 있어 이상적인 몸으로 대표되는 인물은 패션모델과 연예인 등 패션 커뮤니케이션 매체를 통해 전달되는 인물로 나타났다. 이러한 이상적인 몸의 형태는 개인이 선호하는 이상적인 몸 이미지와 일치하는 경우도 있었지만 그 형태의 차이를 보이는 경우가 대부분이었다. 특히 30대 남성들은 20대와 응답과 비교하여, 부피 있는 몸의 형태와 건강 체력 중심의 몸을 이상적으로 추구하는 경우가 많이 나타났다. 이들은 개인의 신체만족도가 높은 경우에도, 바디컨서스 패션스타일 발현에 있어서는 자신의 몸이 그 옷을 입을 정도의 몸이 되지 않는다는 진술과 함께 바디컨서스 패션스타일을 배제하는 특징을 보였다.

결과적으로 본인의 몸이 개인의 이상적 기준과 일치되고 몸에 대한 만족도가 높은 경우에도, 패션스타일 발현에 있어서는 패션스타일에 규정되어 있는 이상적인 몸과의 비교를 통해 제약적으로 받

현하거나 몸과 패션을 분리해 버림으로서 배제, 불호하는 경향으로 변화하기도 하였다.

즉, 바디컨서스 패션스타일의 발현은 개인이 가치를 두는 이상적인 몸과 패션이 규정하는 이상적인 몸이 조화롭게 혹은 충돌하여 개인의 이상적인 몸의 기준이 재구성됨으로써 발현될 수 있음을 시사한다.

3) 관리된 몸을 통한 개인 내면의 표출

현대는 이미지 시대라고 불리울 만큼 개인이 표현하고자 하는 긍정적인 이미지에 대한 동경에 따라 노력이 강화 되고 있다. 남성들은 의복의 다양한 디자인 특성을 통해 개인의 이미지를 일반적으로 표현하는 것보다는 단련된 몸을 가시화 하여 보여줄 수 있는 바디컨서스 패션스타일을 활용하여 개인의 내면을 표출하고자 하고 있었다.

의복은 개인의 자아표현과 관련되어 논의되어진다. 의복은 우리가 누구인지에 대한 개념을 표현함으로써 하나의 상징적 요소로서 발전시킬 수 있기 때문이다. 자아는 자기의 것이라고 부를 수 있는 모든 것의 총체 즉, 감각적, 개념적, 인식적, 감정적 성분이 합쳐진 자기 자신에 관한 총체라고 볼 수 있다. 이러한 의미에서 한국 남성들은 바디컨서스 패션스타일이 개인의 신체적 특성을 가시화 하는 것 뿐만 아니라 개인의 몸 의식과 관련하여 개인이 추구하는 가치를 그대로 표출할 수 있는 스타일로 받아들이고 있다.

한국 남성들은 바디컨서스 패션스타일을 발현함에 있어 기존에 관리된 몸을 그대로 표현하는 것이 아니더라도 의복으로서 그 장점을 확대할 수 있는 대안을 찾고자 하는 의식에서 출발한다. 즉, 몸을 일차원적으로 가시화 하여 보여주는 것과 같은 신체적 표현의 중요성보다 개인의 내적 의미와 사회적 의미를 전달하고자 하는 목적에 중요성에 더 무게를 두고 있는 것이다. 바디컨서스 패션스타일은 기본적으로 개선된 몸의 실루엣을 직·간접

적으로 드러낼 수 있는 실루엣적 특성으로 타인의 시선을 통해 신체적 매력을 어필하는 일차원적인 자기표현이 가능하다. 하지만 개인의 몸 의식에 따른 그 가치는 신체적 매력을 가시화 하는 것을 통해 ‘자기관리가 잘 된 사람이다’ 혹은 더 나아가 ‘업무능력에 원활한 사람이다’ 라는 타인 혹은 사회관계망 안에서 긍정적인 반응을 유도하기 위한 표현으로서 바디컨서스 패션스타일을 착용하는 양상으로 발현되고 있다.

이러한 특성은 한국 여성들을 대상으로 한 연구와는 차이가 존재한다. 여성들이 몸을 노출하는 현상의 원인이 오늘날 사회적 규범이 자유로운 인간 감정을 억제하는 정도를 약화시킴에 따라 여성들이 보다 솔직하게 자신의 내재된 성적 욕구를 표현하게 되었다고 보았다. 여성대상의 연구 결과와는 달리, 몸을 드러내는 패션스타일 발현이 성적 또는 신체적 매력 어필을 목적으로 한 다기 보다 몸을 관리한 특징이 옷을 통해 자신의 개인의 내면적 가치를 표현하고자 하는 것이다. 이는 결과적으로 타인 및 사회로부터의 자신이 인정받고자 하는 표현으로 받아들일 수 있다.

*“자기관리를 안하는 게 그냥 몸매적인 부분뿐
만 아니라 그 밖의 것들도 자기관리 안 할 거라
생각하거든요 그거 하나만 보고 다른 것들도 안
좋게 생각할 수도 있으니까 능력까지도 게을러서
운동도 안하면서 자기일은 잘 하겠나 그런 거죠
외모적인 것이 주는 자신감은 중요하고 끊임없이
생각할거 같아요 그래서 운동이나 외모 관리하는
건 죽을 때까지...그러니까 아무래도 옷을 입어도
몸매가 잘 드러나는 게 그 증거인 것 같아서.” (바
리스타, 34세)*

한국 남성이 바디컨서스 패션스타일 발현하는 것은 몸의 외형적 특질을 과시하고자 하는 의미뿐만 아니라, 몸을 관리하는 실천들의 결과를 가시화하여 개인의 삶에 대한 긍정적인 태도를 표현할

수 있는 의복으로 인식하고 있기 때문이다. 따라서 한국 남성들은 바디컨서스 패션스타일의 외부적, 내부적 가치와 의미에 주목하고 있으며, 개인의 몸의 특질을 통해 구현될 수 있는 내적의미를 복합적으로 표출하기 위해 바디컨서스 패션스타일을 활용하고 있었다. 즉, 한국 남성들에게 바디컨서스 패션스타일은 개선된 몸을 노출시킴으로써, 개인의 내면을 가시화하고 타인 또는 사회에 호감을 주는 이미지를 형성하기 위해 발현되는 스타일인 것이다.

V. 결 론

현대 한국 남성은 기존에 여성과 구분하여 논하기 어려울 만큼 외모를 가꾸기 위해 많은 투자 및 다양한 몸 관리행동을 시도하고 있다. 한국 남성들에게 외모관리행동이 일반화되기 시작한 것은 최근의 일로, 다양한 외모관리행동 중에 몸 관리행동이 가장 기본적이며 보편화되어 있다. 20~30대 한국 남성들은 몸 관리행동과 몸의 개선을 통해 몸 의식이 변화하였고 이는 결과적으로 의복태도의 변화를 가져왔다. 특히 의복을 선택하고 활용하는 방법에 있어 몸을 의식하는 수준이 매우 높아졌으며, 이는 몸을 옷을 통해 더욱 매력적으로 과시하고자 하는 자기표현 욕구가 확대되면서 바디컨서스 패션스타일에 대한 욕구도 높아졌다 (Lee, 2017).

바디컨서스 패션스타일에 대한 수용 정도에 따라 영향 요인을 분석한 결과, 바디컨서스 패션스타일을 선호, 수용하는 그룹은 몸을 드러내고자 하는 타자지향적 과시와 자기만족적 표현 욕구에 영향을 받았다. 바디컨서스 패션스타일을 선택적으로 수용하는 그룹은 몸의 안정감 추구하고 몸과 패션을 분리하는 경향을 통해 바디컨서스 패션스타일을 선택적으로 수용하고 있었다. 마지막으로

바디컨서스 패션스타일을 배제, 불호하는 그룹은 타인 시선에 대한 불편함, 보수적인 문화 규범, 성별 패션스타일의 고정관념에 의해 수용하지 않거나 배제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한국 남성들은 바디컨서스 패션스타일을 발현함에 있어 사회-문화적 기준에 강한 영향을 받아 개인적 스타일 발현 욕구를 충족시키지 못하고 있는 상황이다. 결과적으로 핏감있게 재단된 의복을 통해 몸의 실루엣을 구현하고자 하는 욕구가 큰 집단으로 인식하고 이들의 체형에 대한 종합적인 이해를 바탕으로 의복 구성이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특히 바디컨서스 패션스타일은 의복의 몸의 맞음새에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담당하고 있으므로 일반적인 효용의 목적도 있지만 개인의 감정적인 요구에도 부응할 수 있는 사이즈의 다양화, 재단 및 소재의 기술적 요소의 개발이 필요할 것이다.

한국 남성의 바디컨서스 패션스타일 발현의 특수성은 집단의식에 따른 스타일 결정, 패션스타일에 규정되는 이상적인 몸의 재구성, 관리된 몸을 통한 내면의 표출로 도출되었다. 남성들이 바디컨서스 패션스타일을 발현하는데 있어서 몸에 대한 자신감에 기인하여 몸을 과시하고자 하는 욕구를 바탕으로 하고 있지만, 내면에는 관리된 몸을 통해 자기관리가 된 남성, 업무 능력, 사회적 관계에 있어서의 원활한 남성과 같은 사회적 가치를 상승시키고자 하는 의식을 바탕으로 하고 있었다. 이에 바디컨서스 패션스타일의 디자인 설정에 있어서도 몸의 외형적 형태를 드러내는 실루엣 측면뿐만 아니라 남성들이 표현하고자 하는 사회적 이미지를 구현할 수 있는 디자인적 요소가 결합되어야 할 것이다.

본 연구를 통해 몸이 한국 남성들의 일상에서 매우 중요한 의미로 자리 잡고 있으며 바디컨서스 패션스타일에 대한 욕구가 높은 집단임을 확인하였다. 한국 남성에게 있어 몸의 의미가 그 어느 때

보다 중요해지고 바디컨서스 패션스타일에 대한 욕구가 높아진 만큼 패션업계에서도 이들의 수요에 대응할 수 있는 의복 기획과 디자인 방향 설정이 필요할 것이다. 한국 남성들은 바디컨서스 패션스타일을 발현함에 있어 바디컨서스 스타일에 대한 욕구가 높은 경우에도 사회·문화적 기준에 강력하게 영향을 받아 개인적 스타일 발현 욕구를 충족시키지 못하고 있는 상황이다. 따라서 이들의 체형과 니즈에 대한 종합적인 이해를 바탕으로 의복 기획이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본 연구는 몸에 대한 민감성이 높은 현대 한국 남성 집단을 대상으로 개개인의 몸 관리 경험에 따른 구체적인 바디컨서스 패션스타일에 대한 인식과 수용정도를 파악하고 활용 경향에 따른 바디컨서스 패션스타일 발현의 특수성을 구체적으로 밝혔다는 점에서 학문적 의의가 있다. 본 연구는 질적 방법에 의해 이루어졌으나 이러한 연구 결과를 바탕으로 세부내용을 확인할 수 있는 양적 연구 기반의 후속연구를 진행되기를 기대한다.

References

- Choi, S. Y. (1996, June 24). 태양도 낮붉히는 ‘노출패션’ [‘Body exposed fashion’ like blushed sun]. *The Kyunghyang Shinmun*. Retrieved September 22, 2016, from <http://newslibrary.naver.com/viewer/index.nhn?articleId=1996062400329126001>
- Frith, H., & Gleeson, K. (2004). Clothing and embodiment: Men managing body image and appearance. *Psychology of Men & Masculinity*, 5(1), 40-48. doi:10.1037/1524-9220.5.1.40
- Giorgi, A. (1994). A phenomenological perspective on certain qualitative research methods. *Journal of Phenomenological Psychology*, 25(2), 190-220. doi:10.1163/156916294X00034
- Ha, J. S. (2000). Sports look expressed in 20th century fashion. *Journal of the Korean Society of Costume*, 50(2), 15-28.
- Hogge, V. E., Baer, M., & Kang-Park, J. (1988). Clothing for elderly and non-elderly men: A comparison of preferences, perceived availability and fitting problems. *Clothing and Textiles Research Journal*, 6(4), 47-53.
- Jo, K. H. (2001). *An analysis of the aesthetic characteristics in the body-conscious look*. Unpublished doctoral dissertation, Sungshin Women's University, Seoul.
- Kim, J. Y., & Lee, K. H. (2001). A study on the sensibility of body exposure in contemporary fashion. *Journal of the Korean Society of Clothing and Textiles*, 25(5), 913-924.
- Koh, A. R., & Kang, H. W. (1992). Effect of body exposure and color of suit on the impression of modesty. *Journal of the Korean Society of Clothing and Textiles*, 16(3), 181-195.
- Lee, C. Y. (2017). A study on body image and body management of Korean men. *Journal of the Korean Society of Fashion Design*, 17(2), 73-88. doi:10.18652/2017.17.2.5
- Lee, Y. J., Kim, Y. M., & Kwon, S. J. (2010). Korean men's interests in muscle building and their body satisfaction. *Family and Environment Research*, 48(4), 43-55.
- Ministry of Culture, Sports and Tourism. (2013, March 19). 2012 국민생활체육 참여 실태조사 [Survey on citizens' sports participation 2012]. *Ministry of Culture, Sports and Tourism*. Retrieved June 16, 2016, from https://www.mcst.go.kr/web/s_data/research/researchView.jsp?pSeq=1311&pMenuCD=0406000000&pCurrentPage=1&pTypeDept=&pSearchType=01&pSearchWord=%EA%B5%AD%EB%AF%BC%EC%83%9D%ED%99%9C%EC%B2%B4%EC%9C%A1
- Ministry of Culture, Sports and Tourism. (2016, January 20). 2015 국민생활체육 참여 실태조사 [Survey on citizens' sports participation 2015]. *Ministry of Culture, Sports and Tourism*. Retrieved June 16, 2016, from https://www.mcst.go.kr/web/s_data/research/researchView.jsp?pSeq=1589&pMenuCD=0406000000&pCurrentPage=7&pTypeDept=&pSearchType=01&pSearchWord=
- Park, S. Y. (2018, March 20). 건강미 뽐낼 수 있는 ‘에슬 레저룩’ 인기...남성 레깅스 매출 80% ↑ [‘Athe-leisure look’ that can show off their health is popular...Men leggings sales 80% ↑]. *The Financial News*. Retrieved May 5, 2018, from <http://www.fnnews.com/news/201803201658586780>
- Yoo, I. H. (2004, July 26). [커버스토리] 몸이 패션 ‘야해진’ 남성들 [[Coverstory] Body is fashion ‘sexy’ mens]. *The Kyunghyang Shinmun*. Retrieved June 15, 2016, from <http://news.naver.com/main/read.nhn?mode=LSD&mid=sec&sid1=103&oid=032&aid=0000076789>

Korean Men's Degree of Acceptance and Expression Specificities of Body-conscious Fashion Style

- Focused on Body Management Participants in 20~30s -

Lee, Chai Young • Ha, Ji Soo⁺

Lecturer, Dept. of Textile and Clothing Design, Kyunghee University
Professor, Dept. of Textiles, Merchandising and Fashion Design, Seoul National University⁺

Abstract

This study aimed to determine the significance of the manifestation of a body-conscious fashion style by examining its trend and specificity based on its acceptance. Literature research was performed, and Amadeo Giorgi phenomenological research methodologies were applied. In-depth interviews were conducted among men in their 20s and 30s who demonstrated sensibilities to aesthetic characteristics of the body and regularly practiced body management. The results revealed a group of men who preferred and accepted the body-conscious fashion style, the promoting factors were determined as other-oriented ostentation to show off body change, an increased desire for self-expression through the body. In a group of men who selectively accepted the body-conscious fashion style, a tendency to separate the body from fashion was exhibited. In a group of men who rejected or disliked the body-conscious fashion style, fear of emphasizing the shortcomings of the body, feeling uneasy with the attention of others, conservative environment and gender stereotyping were determined as obstacle factors for the manifestation of the body-conscious fashion style. When adopting the body-conscious fashion style, Korean males exhibit a positive attitude toward displaying the shape of the upper body but a passive attitude toward showing that of the lower body and use colors and details in a highly limited manner when selecting the body-conscious fashion style. The specificities of the manifestation of body-conscious fashion style include the selection of a style according to an internal group consciousness, reorganization of an ideal body and internal expression through a managed body.

Key words : men's fashion, body conscious, body conscious fashion style, body